

우육일일시장뉴스 (2026.10.10)

(주)로드프리미엄 | 대상: 중국 / 일본 / 미국 / 호주 / 뉴질랜드 / 남미(브라질·우루과이·파라과이·아르헨티나)

오늘의 핵심

- 1. 브라질 대선 1차 투표에서 플라비우 보우소나루가 룰라를 47% 대 45%로 앞서자 헤알화가 강세를 보였고, 브라질 거세우 가격은 1주 만에 6.9% 오른 US\$4.63/kg를 기록했습니다.
- 2. 브라질 비육우(boi gordo) 가격은 Cepea 기준 R\$376.30/아로바로 사상 최고치를 다시 경신했습니다. 9월 대미 수출은 48,300톤(+389%)으로 급증했고, 대중국 수출은 12,900톤(-93.2%)으로 급감했습니다.
- 3. 미국 Choice 컷아웃은 10/8 US\$374.85/cwt로 이틀째 내렸고, 5일 평균은 376.76달러입니다.
- 4. 중국은 벨라루스 작업장 28곳의 소고기 수입을 중단해, 공급원 재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
- 5. 호주는 비가 내리면서 재입식 수요가 살아나 재입식 거세우가 519¢/kg(+2.5%)로 올랐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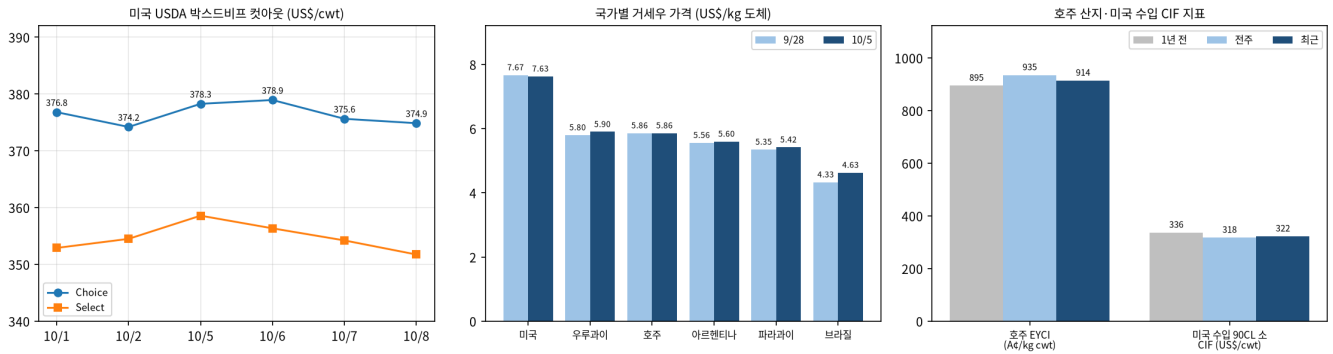
국가별 오퍼가격 참고 지표

실제 한국향 오퍼가격은 비공개이므로, 아래는 미국 수입 CIF, USDA 컷아웃, 산지 경매가, 수출 단가 등 공개 참고 지표입니다.

국가	지표	최근 가격	변동	출처
미국	USDA Choice 600-900 컷아웃 (10/8)	US\$374.85/cwt	전일 -0.77	USDA AMS
미국	USDA Select 600-900 컷아웃 (10/8)	US\$351.73/cwt	전일 -2.48	USDA AMS
미국	거세우 (10/5)	US\$7.63/kg	-0.5%	World Beef Report
호주	미국 수입 90CL 블렌디드 카우 CIF (9/25, 최신 공개분)	US\$320~325/cwt	전주 +5, 전년 -13	MLA 주간 리포트
호주	미국 수입 95CL 볼 CIF (9/25)	US\$365~368/cwt	전주 +3, 전년 +28	MLA 주간 리포트
호주	EYCI (9/30 주간)	914 A¢/kg cwt	전주 -2%, 전년 +2%	ABARES
호주	재입식 거세우 (10/9 주간)	519 A¢/kg 생체	+2.5%	MLA 주간 사항
호주	거세우 (10/5)	US\$5.86/kg	0.0%	World Beef Report
뉴질랜드	P2 스티어 스케줄 북섬 (10/5)	985 NZ¢/kg	1년 전 885 대비 +11%	interest.co.nz
브라질	거세우 평균 (10/5)	US\$4.63/kg	+6.9%	World Beef Report
브라질	Cepea 비육우 (10/8)	R\$376.30/아로바	월간 +3.29%, 사상 최고	Globo Rural
우루과이	거세우 (10/5)	US\$5.90/kg	+1.7%	World Beef Report
아르헨티나	거세우 (10/5)	US\$5.60/kg	+0.7%	World Beef Report
파라과이	거세우 (10/5)	US\$5.42/kg	+1.3%	World Beef Report
미국→한국	8월 대한국 수출 단가 (US\$2.01억 / 19,195톤)	약 US\$10.47/kg	물량 +14%, 금액 +20%	Provisioner(USMEF)

국가별 가격 변화 그래프

우육 국가별 가격 변화



자료: USDA AMS, World Beef Report, ABARES, MLA (90CL은 범위 중간값)

국가별 주요 뉴스

중국

1. 중국이 벨라루스 작업장 28곳의 소고기 수입을 중단했습니다(10/8 보도). (World Beef Report)
2. 브라질의 9월 대중국 수출은 12,900톤으로 전년보다 93.2% 줄었습니다. 쿼터 110만 톤을 넘는 물량에는 55% 추가관세가 붙습니다. (Globo Rural)
3. 중국 내 생우 평균가는 10/9 30.3위안/kg로 보합에서 소폭 강세입니다. (Sohu)

일본

1. 일본의 8월 소고기 수입은 38,686톤으로 전년보다 10.5% 줄어 재고 조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(Food Market)
2. 아르헨티나는 중북부산 소고기·우설의 일본 수출 위생요건에 합의했으며, 일본 측 실사가 끝나면 선적을 시작합니다. (Buenos Aires Times)

미국

1. 10/8 Choice 컷아웃은 374.85달러로 전일보다 0.77달러 내렸습니다. Select는 351.73달러로 2.48달러 내렸습니다. (USDA AMS)
2. 10/9 CME 10월물 생우는 2.82센트 오른 파운드당 2.25달러에 마감했습니다. (WTOP/AP)
3. 연방 당국의 소고기 가격 조사가 식료품 체인 8곳으로 확대됐습니다. (Ground News)
4. 30만 톤 저관세 수입 계획에 대해 미국농업인연맹은 목장주에게 피해가 간다며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. (Ground News)

호주

1. 비가 곳곳에 내리면서 재입식 시장이 살아났습니다. 연휴 영향으로 전국 소 출하는 24% 줄어 48,110두였고, 도축은 늘었습니다. (MLA 주간 시황)
2. 브라질이 연 350만 톤을 수출하는 세계 1위 수출국으로 올라서자, 호주 업계는 이력추적 기반의 프리미엄 시장 공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. (Ground News/QCL)
3. 한국의 호주산 세이프가드 관세 24%는 연말까지 유지됩니다. (Provisioner(USMEF))

뉴질랜드

1. 뉴질랜드의 6월 결산 연도 식품·섬유 수출은 652억 뉴질랜드달러(+8%)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습니다. (Xinhua)

2. P2 스티어 스케줄은 985 NZ\$/kg로 1년 전보다 11% 높은 수준입니다. (interest.co.nz)
3. Westpac은 가공용 트리밍 가격이 반등하면서 수출가격이 높게 유지될 것으로 봤습니다. ([Westpac Agri Bites](#))

남미 (브라질·우루과이·파라과이·아르헨티나)

1. 보우소나루가 1차 투표에서 룰라를 2%포인트 앞서자 헤알화가 강세로 돌아섰고, 메르코수르 거세우 가격이 크게 올랐습니다(4.95달러, +2.3%). ([World Beef Report](#), [El Telégrafo](#))
2. 브라질 비육우는 Datagro 기준 10/8 R\$376.13/아로바로 1주 전 367.02에서 올랐습니다. 9월 대미 수출은 48,300톤으로 월간 최대치였습니다. ([Globo Rural](#))
3. 아르헨티나는 도축이 전년 수준을 밑돌고 있으며, 암소 도축이 절대량 기준으로 가장 크게 줄었습니다(10/8). ([World Beef Report](#))
4. 칠레 시장에서 브라질산 거래가 늘고 있으며, 유로화 약세로 유럽향 냉장육 가격에 하락 압력이 있습니다(10/6). ([World Beef Report](#))

한국 수입업체 관점 시사점

- 남미산: 헤알화 강세와 브라질 산지가 사상 최고치가 겹쳐 남미산 달러 표시 오퍼가 오르고 있습니다. 브라질 물량이 미국으로 쏠리고 있어 한국향 남미산(우루과이·파라과이 등)도 강세 오퍼를 예상해야 합니다.
- 미국산: 컷아웃이 375달러 안팎에서 보합 약세이므로 4분기 척롤·부채살 계약은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. 다만 대한국 수출 단가는 높게 유지되고 있습니다.
- 호주산: 비 소식으로 재입식 수요가 살아나 산지가 반등 신호가 있습니다. 세이프가드 24%를 고려하면 1월 통관분 위주로 조달하는 전략이 여전히 유효합니다.
- 뉴질랜드산: 스케줄이 전년 대비 11% 높아 강세 오퍼가 이어질 전망입니다.

한 줄 요약

브라질 대선과 헤알화 강세로 남미산 소 가격이 크게 올라, 4분기 한국향 소고기 조달에서는 미국산 보합세를 활용하고 남미산 오퍼 상승에 대비해야 합니다.